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6월 7일(화) 총 3매			
담당 부서 산업진흥과	담 당 자 • 기업정책팀장 전정희 ☎440-4251 • 담당자 유현성 ☎440-4253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원부자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턱 낮춰
 -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비율 75%에서 60%이상으로 지원대상 기준 완화 -
 - 6.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통해 신청 -

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기준을 낮추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% 이상인 기업에서 60%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.

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천5백억 원 규모의 이차자금을 지원해 왔다. 그러나 기업들의 지원대상 기준 완화 요구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.

이번 자금은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

은 기업과 러시아·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·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.

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.5%를 균등 지원하며,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.

기존에 시, 군·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. 다만,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.

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(☎ 260-0661~3)하면 된다.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”면서 “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통하며 기업요구에 맞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관련사진

사진

관련자료



△ '21.11.11.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.